

현각선사탑비, 전쟁 상흔 새기고 침묵의 사자후



16 익명의이슈움 혹은 친린함 연곡사

연곡사(燕谷寺)는 항일운동과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절이지만 근래의 중창불사로 유서 깊은 도량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근래 중창한 절이지만 '새 절'의 맛보다는 깊고 그윽한 역사의 향기가 드러나는 절이 바로 연곡사입니다. 이 절의 '과거'가 오롯이 살아 '현재'를 보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곡사 풍경은 눈에 비치는 현재와 마음으로 읽는 과거가 회통되어야 완성됩니다.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 전기에 가장 흥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연곡사의 지난 시간을 응축한 채 서 있는 석조유물들이 연곡사의 풍경을 완성시켜주는 열쇠입니다. 연곡사에는 우리나라 부도 가운데 가장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부도가 있습니다. '부도 중의 부도'라고 불리는 연곡사 동부도(국보 제53호)와 북부도(국보 제54호) 그리고 소요태능 대사의 부도(보물 제154호)와 동부도비(보물 제153호), 현각선사탑비(보물 제152호)가 연곡사의 예와 지금을 돌 아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동부도와 탑비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북부도의 주인도 알 길이 없습니다. 도의 국사 이래 부도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팔각 원당형 부도의 조형적 전형이 자리 잡은 것은 844년에 세워진 영거 화상의 부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곡사의 동부도와 북부도는 통일신라 말기 작품 가운데 걸작이지만 아쉽게도 그 주인을 알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조성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모르는 그 익명성이 원형을 가깝게 잘 보존된 걸작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도가 보여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에서 허공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허공은 공허하지 않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도가 보여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에서 허공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허공은 공허하지 않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허하지 않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몸돌을 잃어버린 탑비와 함께 서 있는 동부도의 높이는 350cm입니다. 부도의 조형적 비례도 압권이지만 어느 곳 한 구석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의 돌로 이루어진 지대석과 하대석의 각 부분에는 운룡문과 사자상을 정교하게 조각했습니다. 중대석과 상대석 탑신 받침에도 연꽃과 팔부신중, 가릉빈가들이 화려하게 현신하고 있습니다. 몸돌의 문비와 사천왕상, 풍경을 매단 향로 등은 엄숙한 종교적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있으며 지붕돌의 처마 아래를 살펴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심하게 표현한 구름 문양들이 보입니다.

나무로 다듬으려고 해도 그렇게 정교하게 치장하기 쉽지 않을 텐데 돌로 다듬은 옥개석은 서까래와 부연, 기왓골과 막새기와의 흐름이 사람의 숨씨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상륜부 역시 화려함과 균형미의 절정입니다. 날개를 활짝 편 가릉빈가의 머리만 없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저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부도가 오늘까지 남아 있는 것 그 자체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동부도 옆의 탑비는 얽전한 거북돌과 현란한 이수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다리를 사방으로 쭉 뻗고 있는 거북은 등에 날개를 치장했습니다. 다른 귀부의 갑문(甲紋)과는 사뭇 다릅니다. 귀부와 재질이 다른 돌로 만들어진 이수는 화려한 운룡문으로 장식됐고 가운데 뿔처럼 영기가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묘사돼 있습니다.

비문이라도 전해져 해석된다면 이 아름다운 부도와 탑비의 주인이 얼마나 올곧은 수행자였는지도 알 수 있겠지만, 보이는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동부도는 조선 국사의 것으로 북부도는 현각 선사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단서가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동부도에서 산 위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이내 북부도를 만납니다. 북부도는 탑비 없이 홀로 서 있는데 한 눈에 동부도보다는 보는 맛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도의 양식들을 충분히 따랐다는 것은 이 시대 동부도와 같은 걸작이 다른 곳에서도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부도에서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100m쯤 내려가면 몇 기의 석종형 부도들이 흩어져 있고 그 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팔각 원당형의 부도 하나를 만납니다. 몸돌 한 면에 '소요대사지탑 순치육년경인(道遙大師之塔 順治六年庚寅)'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서산 대사의 제자인 조선중기 선불교의 거장으로 꼽히는 소요 태능 스님(道遙太能 1562~1649)의 부도입니다. 소요 스님은 순치5년에 입적했고 이 부도는 그 다음해에 세워졌습니다.

담양에서 태어나 백양사로 출가한 소요 스님은 서산 대사의 대표적인 제자인데 연곡사에서 선과 교학을 진작시켰습니다. 날카로운 선기(禪機)와 무



고려 경종 때 세워진 현각선사탑비가 영기를 뿔내며 서있다.

단한 학풍을 겸비한 도인의 넉넉한 살림살이가 다소 살이 오른 듯한 부도에서 느껴집니다. 부도의 하대석에는 구름 속에서 힘차게 꿈틀대는 용들이 묘사되어 있고 중대석과 상대석은 연으로 장식되었습니다. 탑신의 각 면에는 문비와 천왕들이 두툼하게 조각되어 있어 준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기왓골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옥개석은 나름대로 장엄합니다. 여덟 면의 끝에는 귀꽃이 힘차게 솟아 있고 굽게 지붕마루가 묘사되어 안경장 있는 지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위의 상륜부에는 네 면에 비슬을 늘어뜨린 닭이 조각되어 있는데 아마 봉황을 상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즈넉한 숲, 솔바람 소리 속에서 소요 스님의 시냇수를 떠올려 봅니다.

불 속에 핀 붉은 연꽃 옛 옷 속에 떨어지니 나무하는 아이가 광주리에 가득 담아 돌아오네. 옛 가락은 소리가 없으니 누가 감히 화답하라. 시냇가 들레집이 빙긋 웃고 있네.

그림자 없는 나무 한 그루 불구멍이 속에 옮겨 심으니 일부터 봄비 맞지 않아도 붉은 꽃머더기 활짝 피었네. 우습구나 소를 탄 사람이여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구나



동부도의 탑신에는 연꽃과 팔부신중 등이 조각돼 있다.



북부도 주악상. 북부도는 동부도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그림자 없는 나무 베어다가 바닷물 몽팡 태워 말린다네.

서부도로 불리는 소요 스님의 부도를 둘러보고 절 마당으로 내려오는 길에 의병장 고광순 순절비가 있고 그 아래에서 현각선사탑비를 만나게 됩니다. 탑비는 몸돌을 잃고 귀부와 이수만 있습니다. 현각선사탑비는 고려 제4대 경종 때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돌거북의 얼굴이 눈길을 끕니다. 크게 벌린 입과 푹 튀어나온 눈동자, 벌름거리는 듯한 콧구멍, 뒤로 물결치는 수염과 불쑥 솟아난 뿔의 조화가 범접할 수 없는 영기를 뿔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의 이수는 네 귀에 몸을 곧추세운 용을 앉히고

중앙에 여의주를 다루는 두 마리의 용을 조각했습니다. 조각이 깊고 현란하여 몸돌을 받치고 허공에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현각 선사가 허공에서 사자후를 토해낼 것만 같습니다.

귀부의 색이 적갈색으로 변한 것과 더러 보이는 박리현상은 시절인연의 흔적들입니다. 화마의 흔적을 문신처럼 새기고 있는 현각선사탑비도 예와 오늘

의 시간을 돌 아나게 이어 주는 커다란 침묵의 범문입니다.



임연태 = (시인 본지논설위원) mian1@harmal.net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으로 부적이거나 비방편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빠르게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